

<세션2 - 글로벌 ESG 동향과 동남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전략>

오지현 | 법무법인(유) 원 ESG 센터장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급격히 보호무역 기조로 선회하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ESG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하였는데, ESG 정보 공시 대상기업의 범위를 좁히고 보고 내용을 줄이며, 공급망 실사 또한 범위와 주기 등을 축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정책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니며, 미국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강제노동, 분쟁 광물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은 규제를 이어가고 있기에 ESG가치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린 APEC이 성공리에 마무리되면서, AI를 매개로 한 국가 간 협력과 교역이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책임경영에 소홀한 기업들에 대한 법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필자는 OECD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다루는 기관인 NCP의 위원을 맡고 있는데, 올해 들어 국내 NCP에 접수되는 사건 수가 폭증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속도 조절은 ESG 적응 내지 준비 시간을 번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 현 정부가 ESG에 중점을 둔 정부 부처 개편을 이뤄낸 만큼 이제는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최대한 이 시간을 활용하여 다가오는 변화를 본격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